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내년 1월말까지 최종본 제출

2022년 위원회서 등재 여부 결정

남원 유곡리·두락리 등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국내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전북도는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심의 결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함안 말미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13년에 3개 고분군(김해 대성동, 함안 말미산, 고령 지산동)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로 시작하였으나 2017년 문화재위원회에서 3개의 유적만으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다.

이에 가야고분군 104개소 중 선정 평가를 통해 4개 고분군(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창녕 교동과 송현동)을 확대하면서 2019년 1월에 7개의 고분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했다.

세계유산 등재 공동추진을 위해 문화재청과 10개 광역·기초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 2017년 발족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해 왔다.

그간 3개 고분군 내 지자체(김해, 함안, 고령)가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등재 신청서를 일괄에서 재검토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거듭했다.

2017년부터 동아시아 문화권과의 비교연구를 위해 국내 고고학 및 세계유산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중국 및 일본 고분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통한 현장답사와 학술토론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로 가야고분군의 고고학적 가치와 국내,외 비교연구를 담은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총 7권을 발간하기도 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신청은 2019년 3월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등재 신청 후보로 가결되었으나 같은 해 7월 등재 신청 후보 조건부 해소 심의 시에 부결돼 등재 신청

후보 선정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등재추진단에서는 당시 제시되었던 3가지 조건인 ▲역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팀 보강 및 전문가 참여 ▲비교연구 제작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에서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전문가가 검토 후 등재 권고가 있어야 등재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기준(OUV·오전성·진정성·보존관리 등)을 제시, 이해하기 쉬운 완벽한 논리와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제 '가야고분'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심도 있게 수정,보완해 오는 9월말까지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영문 초안 제출 후 내년 1월말까지 영문 최종본을 제출하게 되고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2022년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제 등재 신청서에서 기술한 가야고분군은 주변의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유적임을 세계인에게 입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김상곤 도예가(왼쪽)와 김기철 화백.

## 전통공예공방 전국에 알렸다

무주군, 우수 기술자  
한국화 명인 등 2명 배출

김상곤 도예가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우수 숙련자 선정

김기철 화백 - 한국문화예술  
진흥회로부터 명인 선정

무주 전통공예공방이 우수 숙련기술자와 한국화 명인 등 2명을 배출하면서 전국에 명성을 떨쳤다.

무주 전통공예공방 진목도에 김상곤 선생이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됐으며 보석과 공방 김기철 화백이 한국화 명인으로 선정됐다.

해마다 장인정신을 일깨우면서 전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무주 전통공예공방의 쾌거다.

무주 전통공예공방 김상곤 도예가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2020년도 '우수 숙련기술자'에 선정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우수 숙련기술자는 대한민국 최고 장인인 대한민국 명장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7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는 2012년부터 무주군 전통공예공방에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호 다완(가루로 된 차를 마실때 사용하는 사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를 빚으면서 옛 것에 가까운 분청사기의 기법을 이용해 전통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그릇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상곤 선생은 단국대 도예과를 졸업하고 전국 공예품 대전 장려상, 전북 공예품 대전 풍상, 대한민국향토문화예술대전 국회부의장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석재화를 통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보석과 공방 김기철 화백은 한국문화예술진흥회로부터 한국화 명인으로 선정됐다.

김 화백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수 있는 몇 명 안되는 석재화 작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2011년부터 공방에서 활동해 온 김 화백은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돌을 이용해 자신의 혼을 담아 그림을 그린다.

돌가루로 그린 자신만의 석재화가 코로나19로 잠시 힘겨움을 겪고 있는 무주군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통공예품은 예로부터 이어져 온 민족의 사상, 관습, 풍습에 따라 필요로 만들어진 물건인 본래 기능과 아름다움을 조화시킨 물건이다. 염색, 도기, 옷칠, 장도, 조각, 풀집 등 다양한 공예분야가 있다.

각각의 공예품은 장인에서 장인으로 진승,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공예품들은 우리민족의 문화와 정신, 장인의 혼이 담겨 있어 다른 나라에는 없던 전통 고유의 문화를 잘 표현한다.

조상의 지혜와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한국의 미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전통예술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주 전통공예공방은 이러한 장인의 혼을 담은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금속공예, 목공예, 도예, 석재화 등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공예공방공간이, 장인으로 불리는 작가 7명이 활동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2012년 무주를 대한민국 전통공예 장인들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이번 장인들의 수상을 계기로 해서 당초 취지를 살린 무주군 공예산업의 홍보 및 운영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젠더문화 일상으로의 초대' ... 젠더문화축제, 12~16일 열어

젠더의 눈으로 본 성범죄  
미디어 속 젠더를 말하다 등  
성평등 실천 의지 다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12일~16일까지 4일 간 제9회 젠더문화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8회 젠더문화축제에서 풍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12일~16일까지 4일 간 제9회 젠더문화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젠더문화축제는 '젠더문화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부제 아래, 도내 36개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주관 하는 등 여성·대학·종교·기업 관련 단체들의 참여형 축제로 한층 더 풍성해진다.

지난 3월 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7~8월에 걸쳐 1, 2차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세부프로그램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 주제를 선정했다.

먼저 12일에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콘서트'(젠더의 눈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14일에는 센터 별관 1층에서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미디어 속 젠더를 말하다)의 주제로 ▲미디어 내 성평등 현황과 문제점 분석 ▲변화를 위한 우리들의 경험과 과제 나눔 등이 이뤄진다.

15일은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프로그램으로 중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의

'특별강연'(끝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도 이어진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과 아동을 타깃 하며, 점점 가해자들의 연령이 낮아져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문가의 냉철하지만 쉽게 와 닿는 특강으로 잘못된 성착취 문화에 가담하지 않도록 의식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마지막 날에는 'Talk Talk 한 그녀들'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올해 젠더문화축제는 코로

나19 위기가 사회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 이후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인터넷이라는 것이 숨어 더 잔인해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대처방법, 예방정책, 젠더감수성, 준비정신 등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성평등 문화가 곧 우리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사업팀(063-254-38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핸드인핸드 릴레이 캠페인' 동참

사회적경제기업 돕기 위해



store36.5+(www.sepp.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전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은 전주한울생협협동조합, 거시기장터, 라이프엔픽 전북여성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 후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SNS를 통해 응원문을 알리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센터는 전북도국제교류센터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센터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인 '전북수제전통차협동조합'의 대추차를 구매해 다음 릴레이 주자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북장애인 체육회,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달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운애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태풍 피해로 인해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입은 e-

##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실' 개관

국립전주박물관은 '선비문화실'을 새롭게 단장, 개관을 기다리고 있다.

'선비문화실'은 2018년부터 국립전주박물관이 추진해 온 '조선 선비문화' 특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전시는 조선의 지도자이자 실천하는 지식인인 선비의 성장, 역할, 문화의 힘에 초점을 맞춰 전시품이 지니는 역사적 맥락과 기능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소개했다.

국보 제110호 '이제현 초상', 보물 제568호 '윤봉길 의사 선서문', 보물 제569호 '안중근 의사 유묵'을 비롯해 전주의 대표 선비 가문인 전주 류씨 중종 분묘 출토 문화재, 송시열의 초상과 유품, 김정희의 최고 수준의 글씨를 보여주는 '무량수각' 편액 등 총 88건 226점이 출품됐다.

전시는 제1부 '조선, 선비를 기르다', 제2부 '선비, 조선을 이끈다', 제3부 '문화, 선비 정신을 지키다'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개관사업에서 전열장은 최고급 저철분 유리를 사용했고, 전시실 조명을 LED로 교체해 쾌적한 전시 환경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장은성 기자

## 박물관에서 '선비와 자연' 만나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실 내 실감 콘텐츠 공간 개관

선비가 바라본 별자리·서원으로 가는 길 등 7개 테마

국립전주박물관은 11일 본관 1층 '선비문화실' 내에 조선 선비문화 실감 콘텐츠 공간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실감 콘텐츠 공간은 '선비와 자연'을 주제로 구성돼 있다. 신설된 '선비문화실'에서는 전시 공간과 함께 선비와 자연을 테마로 한 실감 콘텐츠 공간을 별도로 구성했다.

실감 콘텐츠 전시공간은 총 7개의 테마로 구성, 콘텐츠를 통해 선비와 자연의 경관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테마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비가 바라본 별자리'에는 천문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선비들의 모습을 별자리로 형상화했다. '차 한 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은 다도茶道 속에 담긴 선비정신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영상, 아름다운 시조와 함께 감상하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서원으로 가는 길'은 서원으로 가는 숲길을 연출하고 모션 인식 등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손을 대면 반응하는 반응형 공간이다. '서원을 바라보며' 공간에서는 대표적인 서원인 병산서원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우아한 영상을 구현하고, 민대루에 올라서서에는 병산서원 민대루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서원, 선비정신을 키우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서원의 사계절을 3면 입체 영상으로 구현해 시각, 청각을 통해 느끼고 사색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선비, 유랑길에 오르다' 코너에는 가상의 선비가 선비의 일상, 교류와 나들이, 명산을 유람하는 모습을 김홍도를 비롯한 주요 회화작품 속에서 구현했다.

선비문화실 실감 콘텐츠 공간은 코로나가 완화돼 재개관이 되면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향후 관련 영상과 전시실 소개에 대한 정보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부안군, 내소사설선당·요사 가치 조명

부안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보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항미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이상희 목원대학교 교수, 한수영 호남문화재연구원 주재 발표에 이어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가 갖는 역사·건축적 가치를 집중 조명해 보물로서 승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